

전후세대의 경제의식

정 영 일*

次>

- | | |
|-----------------------------|-------------------|
| I. 머릿말 | 3. 소득분배와 임금 |
| II. 분석자료 | 4. 노사관계 |
| III. 국민의 경제의식과 전후세
대의 특징 | 5. 소득 및 직업에 관한 태도 |
| 1. 경제현실 및 생활수준 | 6. 가계소비생활 |
| 2. 경제정책 및 제도 | IV. 맷음말 |

I. 머릿말

해방 40년을 경과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있어 전후세대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전후 부흥으로부터 1960년대이래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주역이 전전세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성숙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앞둔 전환기의 주역은 바로 전후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전후세대가 지닌 경제의식이나 가치관은 한국경제 사회 장래의 발전 방향이나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건전한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의의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여타의 제측면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 관련된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가 비교적 소홀해 왔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의 주어진 제약 아래서 기존연구들과 최대한 가공 활용함으로써 전후세대가 지니고 있는 경제의식면의 특징을 추출해 보고 거기서 얻는 함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만, 우리는 당초의 조사목적에 비추어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로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된 두 가지의 국민의식조사

* 서울大 社會大, 經濟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국민의식조사’와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생활의식조사’) 결과 및 항목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전후세대란 용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해방이후에 출생한 세대로 정의해 두고자 한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이 연구에서 주된 분석자료로 삼는 두 조사가 이루어진 1986년을 기준으로 볼 때 40 내지 41세 미만으로 되는 바, 이 구분은 이들 두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취해진 연령구분 40세 미만과 거의 일치하게 되며, 우리의 연구에서는 1986년 현재 40세 이상의 응답가구주는 전전세대로 분류된다.

분류 목적에 따라서는 전후세대를 예컨대 전쟁이나 극도의 빈곤을 경험하지 못한 1960년대 이후에 성장한 세대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측면에 관한 한 이들은 아직도 독립된 경제생활의 단위를 이루어 국민경제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까지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로만 전후세대를 국한하는 의의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세대의식이란 말은 국민경제나 가계운영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 또는 가치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의 분석은 경제현실과 생활수준, 세대정책 및 제도, 소득분배와 임금, 노사관계, 소득 및 직업에 대한 태도, 가계소비생활 등 폭넓은 문제에 관한 국민의식의 분포와 전후세대의 특성을 관찰하는 데 집중된다.

Ⅱ에서는 우리의 연구에 원용되는 기존조사 연구자료 및 그 가공방법에 관해 서술하며, Ⅲ에서는 앞서 든 여러 측면에 관한 전후세대의 특징적 의식을 국민전체의 평균치 내지 전전세대의 그것과 대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Ⅲ에서 얻은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축에 관해 논급하고자 한다.

Ⅱ. 분석자료

오늘날의 전후세대가 지니는 경제의식 내지 가치관을 밝히려는 이 연구를 위해 원용할 수 있는 기존의 포괄적인 조사결과를 입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실시한 바 있는 ‘국

민의식조사' 결과와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실시한 '국민경제생활 의식조사' 결과로부터 우리의 연구목적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두 조사결과 중에서 우리의 연구주제인 '전후세대의 경제의식'을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조사항목들을 추출, 재집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 작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되는 이들 두 조사의 개요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는 1960년대 이후의 빠른 변동을 거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전환기적 상황'이 어떠한 모습을 가진 것인지 국민들이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대외관계의 4분야로 구성되며, 조사의 중심내용은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 잇슈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및 국민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의 성향파악에 두어지고 있다. 조사는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영남·호남·중부지역, 도시·농촌지역, 상층·중층·하층 생활지역을 골고루 포괄할 수 있는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전국의 가구주 1,185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방식으로 1986년 12월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는 경제분야의 중점조사 대상항목으로 경제현실 및 경제정책, 소득분배, 경제체제 및 노사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1986년 6월에 실시된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생활의식조사'는 국민의 경제생활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저축증대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사의 주된 분석대상은 생애계획, 소득 및 근로, 소비지출, 저축,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의식이며, 조사방법은 전국의 가구 중에서 지역총화계통추출법으로 거주지,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종교별, 학력별, 인장지역별, 직업별, 부양가족수별, 소득 및 지출규모별로 나눈 가구의 가구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두 가지 조사는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상이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상이한 항목을 가지고 행해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구목적인 전후세대의 경제의식파악을 의도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들 두 조사는 모두가 비교적 최근에 전국을 모집단으로

해서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을 알아보려는 포괄적인 대규모조사이며, 어느 쪽이나 가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구주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일 뿐 아니라 원래의 조사표를 재집계한다면 응답자를 연령층으로 구분함으로써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경제의식과 그 세대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점에서 우리의 연구목적에 매우 적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이들 두 조사결과 가운데 경제의식에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응답을 응답자의 연령층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층으로 재집계하여 그 분포를 전체응답자의 그것과 대비시켜 보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결과는 '전환기의 한국사회—국민의식조사자료집' (1987. 6. 간행)에 실려있는 기본변도와 교차집계표의 연령별 분석표를 대비, 가공함으로써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그 보고서인 '한국인의 생활의식조사—경제생활을 중심으로' (1986. 12. 간행)에 수록된 분석표에만 의존할 수 없어 원조사자료의 관련항목을 연령계급별로 재집계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이들 두 조사에 포함된 항목들을 우리의 연구목적에 비추어,

- (1) 경제현실 및 생활수준
- (2) 경제정책 및 제도
- (3) 소득분배와 임금
- (4) 노사관계
- (5) 소득 및 직업에 대한 태도
- (6) 가계소비생활 등

6가지의 측면으로 묶어서 각각에 관련된 전후세대의 의식 및 가치관의 특성을 밝혀보기로 한다. Ⅲ의 분석에 쓰인 표의 출처는, (1)~(4)는 사회과학연구소 조사결과를, (5)~(6)은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가공한 것임을 밝혀 둔다.

III. 국민의 경제의식과 전후세대의 특징

1. 경제현실 및 생활수준

우리 국민들은 근년에 있어서의 우리 경제현실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주의 68%가 70년대와 비교하여 현재의 생활이 좋아졌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비해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의식은 세대간의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고 있다.

<표 1-1> 70년대와 비교하여 귀하의 현재 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좋아졌다	65.8	69.5	68.1
변함이 없다	23.8	21.2	22.2
나빠졌다	10.4	9.3	9.7
합계	100.0	100.0	100.0

또한 <표 1-2>에서 보듯이 생활수준 향상에 있어서의 응답자의 상대적인 지위변동에 관해서는 커다란 세대차 없이 상대적 지위에 변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의 75%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졌다는 응답자와 덜 좋아졌다는 응답자의 비율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주목 된다.

<표 1-2> (<표 1-1>에서 좋아진 경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졌다	8.8	13.5	11.8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좋아졌다	77.0	74.0	75.1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덜 좋아졌다	14.2	12.5	13.1
합계	100.0	100.0	100.0

한편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면(<표 1-3>), 전체응답자가운데서 35% 정도가 다소간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65% 내외가 만족 또

는 그저 그렇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세대별로 보면 전후세대에 있어 불만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간 높고 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약간 낮으나 그리 큰 격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표 1-3〉 귀하는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매우 만족스럽다	0.9	1.3	1.1
만족스럽다	14.0	22.3	19.2
그저 그렇다	42.1	46.1	44.6
불만스럽다	34.1	25.0	28.5
매우 불만스럽다	8.9	5.3	6.7
합계	100.0	100.0	100.0

물가변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의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낙관적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 와서 물가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평균 18%인데 반해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를 세대별로 보면 그리 큰 차이는 없으나 전후세대가 전전세대에 비해 약간 물가정책의 성과에 비해 비판적인 편이라고 하겠

〈표 1-4〉 귀하는 물가(物價) 사정에 대해 70년대에 비해 80년대에 들어와서 좋아졌다고 보시는 지 나빠졌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좋아진 편이다	47.0	54.6	51.8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31.7	29.7	29.7
나빠진 편이다	21.3	15.7	17.8
합계	100.0	100.0	100.0

〈표 1-5〉 귀하는 앞으로의 물가전망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좋아질 것이다	35.9	48.9	44.1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49.8	41.8	44.8
나빠질 것이다	14.3	9.3	11.1
합계	100.0	100.0	100.0

다. 앞으로의 물가전망에 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갖는 응답자의 비율은 11%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낙관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 간의 차이는 현재의 물가사정에 대한 평가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1-5〉).

2. 경제정책 및 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달성한 경제발전의 성과로서의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이나 경제안정의 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앞으로의 성장전략이나 경제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종래 방식의 답습에 관해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래와 같은 고도성장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속도를 늦추더라도 경제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84%가 후자를 선택하고 있어 종래의 고도경제성장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관해 매우 심각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안정성장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 이 문제에 관한 세대간의 의견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전후 세대쪽이 한층 고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1〉 다음 갑·을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의견은 어느 것있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갑) 고도 경제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13.8	17.1	15.9
(을) 성장속도를 늦추더라도 경제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86.2	82.9	84.1
합계	100.0	100.0	100.0

부의 축적과정에 관련된 도덕성평가에 있어서는 부자들의 상당수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라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57%에 이르는데 비해 부자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라는 의견은 43% 남짓에 그치고 있어 고도성장기 한국자본주의가 지녀왔던 천민적 성격에 관한 국민의식이 매우 높음을 엿볼 수 있으며, 부의 축적과정에 있어서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전전세대에 비해 전후세대에 있어 한층 부정

〈표 2-2〉 다음 갑·을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의견은
어느 것입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갑) 부자들은 대부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 돈을 모은 사람들이다.	37.5	47.1	43.5
(을) 부자들은 상당수가 좋지 않은 방법으 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다.	62.5	52.9	56.5
합계	100.0	100.0	100.0

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2-2〉).

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항목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것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기인하는가 아니면 정치나 사회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에 관해 보면(〈표 2-3〉), 전전세대의 60% 남짓이 개인탓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 전후세대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48%가 정치나 사회제도의 잘못에 원인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전세대에 비해 전후세대는 운명론적 사회인식을 상당히 탈피해 가고 있으며,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다음 갑·을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의견은
어느 것입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갑) 생활이 어려운 것은 노력이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52.3	60.9	57.7
(을) 생활이 어려운 것은 정치나 사회제도 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47.7	39.1	42.3
합계	100.0	100.0	100.0

한편 개인의 자유와 사회발전간의 관계에 관해서는(〈표 2-4〉) 전체응답자의 과반수를 약간 넘은 53%가 “사회가 잘되기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어느 정도 희생되어도 좋다”는 선택을 나타내었으며, “개인을 희생하면서 사회를 잘되게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선택한 사람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의 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설명문을 가지고 속단을 내리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러한 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오랫동안 이데올로기적 긴장대립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서구적인 개인주의가 사회풍조로서 뿌리를 내릴 만큼 역사가 길지 못

한 사정을 들 수 있을 것 같으며, 이러한 태도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세대차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적 사고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60년대 이래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널리 전개되어 왔던 정부주도형 경제운영방식, 공해의 확산,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 부동산투기를 통한 부의 형성, 개인 또는 기업의 토지파다보유 등에 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임을 볼 수 있다.

〈표 2-4〉 다음 갑·을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의견은 어느 것입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갑) 사회가 잘되기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어느 정도 희생되어도 좋다.	52.5	54.1	53.4
(을) 개인을 희생해 가면서 사회를 잘되게 하려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47.5	45.9	46.6
합계	100.0	100.0	100.0

〈표 2-5〉에 따르면 정부주도형의 경제를 보다 확대하거나 정부개입을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정부간섭을 줄이거나 민간주도형 경제운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세대별로 보면 전전세대가 다소간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데 비해 전후세대에 있어서는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한층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공해에 관해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증대가 다소 희생되더라도 공해 산업은

〈표 2-5〉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주로 정부가 주도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정부주도형의 경제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8.0	8.0	8.0
정부의 개입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좋다.	13.9	19.5	17.4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 좋다.	28.1	36.6	33.4
민간주도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50.0	35.9	41.2
합계	100.0	100.0	100.0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응답자의 88%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며, 경제 성장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공해 산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12%에 불과한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반대의견이 거의 세대차이를 초월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표 2-6〉).

〈표 2-6〉 다음 갑·을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의견은 어느 것입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갑) 경제 성장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공해 산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11.6	14.3	12.3
(을) 경제 성장과 소득증대가 다소 희생되더라도 공해 산업은 금지해야 한다.	88.4	85.7	87.7
합계	100.0	100.0	100.0

또 대기업위주의 경제운영을 지속할 것인가,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관한 의견(〈표 2-7〉)에 있어서도 종래의 경제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이어서,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지만 균형된 사회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91%에 이르는 반면, 대기업은 경제적 효율, 고용, 임금, 국제경쟁력 등에서 잇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9%에 머물고 있으며, 세대간의 의견차이도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접근해 있다.

한편 부동산 투기문제에 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총응답자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세대별로 보면 전후세대에 있어 그 심각성의 인식이 약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2-8〉).

〈표 2-7〉 다음 갑·을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의견은 어느 것입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갑) 대기업은 경제적 효율, 고용, 임금, 기술, 국제경쟁력 등에서 잇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육성해야 한다.	7.3	9.4	8.8
(을)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지만 균형된 사회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92.7	90.6	91.2
합계	100.0	100.0	100.0

〈표 2-8〉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투기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아주 심각하다	30.5	25.1	27.1
조금 심각하다	43.6	43.1	43.2
별로 심각하지 않다	24.1	29.0	27.2
전혀 심각하지 않다	1.8	2.8	2.5
합계	100.0	100.0	100.0

또한 특정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토지의 과다보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개인이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져도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표 2-9〉). 이에 비해 “한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게 세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거나 “토지소유면적을 제한해야 한다”는 토지소유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소유규제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는 세대차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표 2-9〉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개인이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져도 억제 할 필요가 없다.	10.9	6.2	8.0
한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게 세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	40.6	41.8	41.3
토지소유의 면적을 제한해야 한다.	35.4	41.3	39.1
토지의 사용권만 인정하고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13.2	10.7	11.6
합계	100.0	100.0	100.0

재산상속에 관해서도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은 전체응답자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보다 사회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과다보유의 규제필요성에 관한 태도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표 2-10〉).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필요성은 비단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뿐 아니라 남북통일이나 최근 흔히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좌경화문제에 대한 대응책으

〈표 2-10〉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13.8	14.9	14.5
일부는 상속하고 일부는 사회로 환원시켜야 한다.	67.9	68.9	68.5
대부분 사회로 환원시켜야 한다.	18.3	16.2	17.0
합계	100.0	100.0	100.0

〈표 2-11〉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경제우위 확보	30.8	38.3	35.5
군사우위 확보	8.2	13.8	11.7
민주화의 달성	26.7	16.8	20.5
남북관계 개선	29.6	26.2	27.5
공산권 교류 확대	3.6	4.1	3.9
기타	1.1	0.8	0.9
합계	100.0	100.0	100.0

로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의식되고 있음을 본다. 〈표 2-11〉에 따르면 통일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우위의 확보 및 공산권교류확대 등 보다 도 경제우위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항목보다도 경제우위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있는 의견은 전전세대나 전후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일부 학생의 좌경화의 원인으로서는 전 전세대가 '6·25의 경험이 없어서'와 '반공이념교육의 불충분'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에 비해 전후세대는 '민주화의 자연'과 '심한 빈부격차'를 들고 있는 점에서 뚜렷한 인식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표 2-12〉). 전후세대가 '심한 빈부격차'를 '복괴의 선동'이나 '좌경서적의 범람', '반공이념교육의 불충분', '6·25의 경험이 없어서' 보다도 일부 집단의 좌경

〈표 2-12〉 최근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집단이나 학생이 좌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고르십시오.)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북괴의 선동	8.8	10.8	10.1
좌경서적의 범람	12.8	13.2	13.0
반공이념 교육의 불충분	12.6	17.9	16.2
6·25의 경험에 없어서	17.5	28.2	24.7
민주화의 지연	26.8	15.6	19.3
심한 빈부격차	21.5	14.3	16.7
합계	100.0	100.0	100.0

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전세대에 있어서도 빈부격차를 좌경화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그리 낮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우리 경제에 있어서 소득분배개선이라는 과제가 지니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3. 소득분배와 임금

경제성장성과의 사회성원간의 분배에 관한 의식에 관련된 조사항목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득격차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50%가 “아주 심각하다”고 의식하고 있으며 “조금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0%에 달함으로서 현재의 소득분배상태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표 3-1〉). 이는 앞서 살펴본 부의 축적과정의 정당성에 관한 회의와 일관성을 지닌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문제가 “전혀 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응답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표 3-1〉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아주 심각하다	55.0	46.7	49.8
조금 심각하다	35.5	42.4	39.9
별로 심각하지 않다	9.5	10.3	10.0
전혀 심각하지 않다	0.0	0.6	0.3
합계	100.0	100.0	100.0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소득격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은 전후세대에서 약간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대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또한 2~3년전의 소득분배와 오늘날의 그것을 비교할 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의 전체응답자의 18%인데 비해 “격차가 심해졌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른바 ‘부익부 빙익빙’ 현상의 진전이 분배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지배적인 인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3-2〉). 세대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전전세대에 비해 전후세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식이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이 기업 안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대차이와는 관계없이 응답자의 80% 이상이 “경영주에게 유리하게”라는 의견을 제시한 데 반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의식을 지닌 사람은 불과 3%에 머물고 있다(〈표 3-3〉).

〈표 3-2〉 2~3년전의 소득분배와 현재의 소득분배를 비교한다면?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응답	0.0	0.2	0.1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소득격차가 줄어 들었다.	16.0	19.6	18.3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소득격차가 심해졌다.	49.0	45.2	46.6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소득격차가 별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22.8	20.9	21.6
잘 모르겠다.	12.2	14.1	13.4
합계	100.0	100.0	100.0

〈표 3-3〉 경제성장의 혜택은 기업 안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경영주에게 유리하게	83.2	81.5	82.1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3.4	2.8	3.1
공평하게	13.4	15.7	14.8
합계	100.0	100.0	100.0

한편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간에 경영성장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설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도 “도시에

유리하게”라는 의견이 80%를 넘는 데 반해 “농촌에 유리하게”라는 대답은 3%에 지나지 않아 〈표 3-3〉의 응답과 흡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4〉 경제성장의 혜택은 지역(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도시에 유리하게	81.8	82.0	82.0
농촌에 유리하게	3.9	3.0	3.3
공평하게	14.3	15.0	14.7
합계	100.0	100.0	100.0

재벌과 서민간의 갈등 내지 거리감에 관한 〈표 3-5〉의 설문에 대해서는 “아주 작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합쳐서 12%에 불과한데 비해 “아주 크다”가 47%, “크다”가 41%로서 재벌과 일반국민간의 갈등의 완화문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바는 이러한 갈등이나 거리감이 전전세대보다는 전후세대에서 더 한층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서,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전세대의 42% 수준에 비해 전후세대의 경우에는 56%에 이르고 있다.

〈표 3-5〉 귀하는 재벌과 서민 사이에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
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아주 작다	0.2	0.8	0.6
작다	1.4	2.1	1.8
그저 그렇다	6.6	11.2	9.5
크다	36.1	44.3	41.2
아주 크다	55.7	41.6	46.9
합계	100.0	100.0	100.0

마지막으로 임금인상과 물가안정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표 3-6〉의 설문에 대해 “물가가 다소 뛰더라도 임금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7%인데 비해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은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63%에 이르고 있다. 이를 세대별로 볼 때 전후세대에서 임금인상을 우선해야

〈표 3-6〉 다음 갑·을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의견은 어느 것입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갑) 물가 안정을 위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57.8	80.0	63.2
(을) 물가가 다소 뛰더라도 임금은 높여야 한다.	42.2	20.0	36.8
합계	100.0	100.0	100.0

한다는 목소리가 전전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수의견은 여전히 물가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고도성장기에 만성적으로 진전되어 왔던 물가등귀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노사관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노사관계에 관련된 국민의식 가운데서 먼저 노동조합의 존립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으로서는 “노동조합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므로 없는 편이 낫다”는 견해는 전체응답자의 불과 6%에 지나지 않는 소수의견이며, “노동자의 권리와 대기업에는 노동조합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94%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다(〈표 4-1〉). 이러한 노동조합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풍토가 현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분규의 근본원인이라고 하겠다.

〈표 4-1〉 다음 갑·을 두 사람의 의견 가운데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의견은 어느 것입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갑) 노동자의 권리와 대기업에는 노동조합이 꼭 있어야 한다.	95.9	92.0	93.6
(을) 노동조합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므로 없는 편이 낫다.	4.1	8.0	6.4
합계	100.0	100.0	100.0

다음으로 현재 노동자가 기업가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표 4-2〉)에 대해서 “대체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

답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67%,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대답이 17%에 각각 이르고 있어 노사관계에 있어 불만요인이 상당히 널리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현재 노동자는 기업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대체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11.1	20.0	16.7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68.5	65.8	66.8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4	14.2	16.5
합계	100.0	100.0	100.0

또한 〈표 4-3〉의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 내지 거리감에 대한 의견에서 “아주 작다”, “작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의 합계가 32%인데 비해, “크다”가 46%, “아주 크다”가 22%로서 노사간의 갈등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앞서 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사간의 갈등 내지 거리감에 관한 의식에 있어서 세대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후세대 쪽이 한층 첨예한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본다.

〈표 4-3〉 귀하는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나 거리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아주 작다	0.9	2.6	2.0
작다	6.8	8.3	7.7
그저 그렇다	19.1	24.4	22.4
크다	46.2	45.8	46.0
아주 크다	27.0	18.9	21.9
합계	100.0	100.0	100.0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사분규가 지니는 심각성에 관해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총응답자의 34%인데 비해 “조금 심각하다”가 47%, “아주 심각하다”가 19%에 이르고 있다 (〈표 4-4〉).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체응답자의 2/3가 노사분규문제를 심각하-

게 보고 있으나 그 정도가 그리 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별다른 세대간의 차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응답의 분포를 보아 다수국민은 노사분규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해결가능성에 관해 비관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하겠다.

〈표 4-4〉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사분규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아주 심각하다	18.8	19.5	19.2
조금 심각하다	47.7	46.4	46.9
별로 심각하지 않다	29.9	31.4	30.8
전혀 심각하지 않다	3.6	2.7	3.1
합계	100.0	100.0	100.0

마지막으로 노사분규의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64%가 고용주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불과 13%에 머물고 있으나 외부세력의 개입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19%에 이르는 점은 상당히 주목된다(〈표 4-5〉).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할 만큼 근로자의 지위가 강화되지 못함으로써 노사분규의 책임이 고용주와 외부세력개입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표 4-5〉 노사분규의 책임은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근로자	5.7	5.7	5.7
고용주	66.8	62.0	63.8
노동조합	6.6	8.5	7.8
외부세력	17.3	20.9	18.5
기타	3.6	2.9	3.2
합계	100.0	100.0	100.0

5. 소득 및 직업에 관한 태도

개인적 차원에서 소득이나 직업에 대해 지니는 태도는 사회전체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5-1〉은 어느 정도의 장래를 내다보고 가계생활계획을 세우는가 하는

설문이다. 전체응답자의 33%가 “2~5년 정도까지는 내다보고 산다”고 말했으며, 30%의 응답자는 “그저 1년 정도 앞만 내다보면서 산다”고 대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16%에 이르는 데에 반해 “6~10년 및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산다”는 사람은 전체의 2할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인의 8할가량은 5년 미만의 기간에 관해 가계생활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러한 개념을 결여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전전세대 속에 고령자가 포함된다는 특성을 고려하고서도 전전세대보다는 전후세대쪽이 장기생활계획을 세우는 비율이 높아 비교적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표 5-1〉 택에서는 가계생활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 응답	0.3	0.3	0.3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11.0	18.7	16.0
그저 1년 정도 앞만 내다 보면서 산다.	25.7	31.9	29.7
2~5년 정도까지는 내다 보고 산다.	38.6	30.3	33.2
6~10년 정도까지는 내다 보고 산다.	11.1	10.2	10.5
10년 이상은 내다 보고 산다.	13.3	8.7	10.3
합계	100.0	100.0	100.0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태도(〈표 5-2〉)를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버는 것이 좋다”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의견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은 데 반해 “자기 분수에 맞게 적당히 버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전체응답자의 40%, “부정한 방법만

〈표 5-2〉 가구주께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 응답	0.1	0.1	0.1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버는 것이 좋다.	2.8	3.4	3.2
부정한 방법만 아니면 많이 버는 것이 좋다.	45.3	36.8	39.8
자기분수에 맞게 적당히 버는 것이 좋다.	41.8	52.0	48.3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10.0	7.7	8.5
합계	100.0	100.0	100.0

아니면 많이 버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전전세대와 전후세대로 나누어 보면, 전전세대의 경우에는 “분수에 맞게 적당히 버는 것이 좋다”는 쪽이 과반수의 다수의견인데 비해 전후세대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만 아니면 많이 버는 것이 좋다”는 쪽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때 전후세대는 전전세대에 비해 물질생활 내지 경제적 여유라는 측면을 한층 중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여가에 대한 태도(<표 5-3>)에 있어서는 전체응답자의 46%가 “여가를 갖고 싶지만 나의 형편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태도를 나타낸 사람의 비율은 37%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자주 여가를 누리고 있다”는 응답자는 불과 6%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여유도 없다”는 응답이 11%에 이르고 있다. 이 설문을 토대로 한다면 아직도 생활 속에 여가개념이 자리잡을 여유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간의 차이를 보면 전후세대에서 전전세대에 비해 “가끔 여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으며, “그런(여가라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여유도 없다”는 의견의 비율이 낮아서, 그들의 생활 속에 여가개념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가구주께서는 여가(일을 하지 않고 휴식, 오락 등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응답	0.0	0.5	0.3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여유도 없다.	6.6	12.7	10.6
여가를 갖고 싶지만 나의 형편과는 거리가 멀다.	46.8	45.7	46.1
가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41.0	34.4	36.7
자주 여가를 누리고 있다.	5.6	6.7	6.3
합계	100.0	100.0	100.0

직장 또는 직업전환에 관한 희망(<표 5-4>)에 관한 설문에서 전후세대는 전전세대에 비해 전직희망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간의 전직에 관한 의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연령차이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표 5-4〉 가구주께서는 직장을 뚫기거나 혹은 직업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응답	0.2	1.8	1.3
원한다	44.0	29.5	34.6
원하지 않는다	55.8	68.7	64.1
합계	100.0	100.0	100.0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표 5-5〉에서 전체응답자의 43%가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고, 29%가 “장래성이 없기 때문”임을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과 “업무과중 때문”을 이유로 들고 있다. 대체로 볼 때 세대간에 전직이유의 분포에 기본적인 차이는 찾기 어려우나 전후세대는 전전세대에 비해 경제적이유보다는 장래성을 중시하는 경

〈표 5-5〉 직장을 뚫기거나 바꾸길 원하신다면 그 이유는?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10.7	9.4	10.0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36.4	47.9	42.6
장래성이 없기 때문이다.	32.4	25.5	28.6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	15.4	11.4	13.2
기타	5.1	6.1	5.6
합계	100.0	100.0	100.0

〈표 5-6〉 가구주께서는 부녀자(미혼녀 또는 기혼녀)가 일하러 나가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미혼녀	기혼녀	미혼녀	기혼녀	미혼녀	기혼녀
무응답	9.9	1.2	4.9	1.6	6.7	1.5
밖에 나가는 것을 절대 반대이다.	2.9	11.0	3.6	9.8	3.3	10.2
원칙적으로 반대이다.	3.4	18.8	4.3	18.7	3.9	18.7
나가도 좋고 나가지 않아도 좋다.	10.3	12.4	12.2	12.8	11.5	12.7
필요하다면 나가는 것이 좋다.	57.2	52.6	56.7	50.5	56.9	51.2
꼭 나가서 돈을 벌든지 사회봉사라도 해야 한다.	16.3	4.1	18.4	6.6	17.6	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부녀자의 취업 또는 사회활동에 관한 세대주들의 의견(〈표 5-6〉)을 보면, 미혼녀나 기혼녀를 막론하고 “필요하다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으며, “꼭 나가서 돈을 벌든지 사회봉사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나가도 좋고 나가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까지를 궁극적인 범주에 포함시켜 생각한다면 70% 이상이 개방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 관한 전후세대와 전전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어느 세대든 간에 기혼녀의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는 미혼녀에 대한 그것보다 다소 소극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가의 여부에 관한 설문(〈표 5-7〉)에서 “직업에 귀천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에 불과하며,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27%, “귀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비율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의견이 소수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의 분포는 우리 국민들의 전근대적인 직업의식을 반영하는 결과라기보다는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각종 직업 간의 사회경제적인 차별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높고 전통적 사고에 얹매일 가능성 이 낮은 전후세대에 있어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전세대에 비해 약간이나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표 5-7〉 가구주께서는 직업의 귀천(貴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응답	0.2	0.3	0.2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다.	28.9	25.6	26.8
직업에는 귀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6.1	34.7	35.2
직업에 귀천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29.0	33.3	31.8
잘 모르겠다.	5.8	6.1	6.0
합계	100.0	100.0	100.0

6. 가계소비생활

먼저 “댁에서는 수입·지출내역을 적고 있습니까?”라는 설문(〈표 6-1〉)

에 대해 “기록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에 불과하며, 61%의 가구주가 가계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가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별로 보면 전후세대에 있어서는 “가계부에 적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전전세대에 있어서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 전후세대가 가계생활의 합리화를 위해 한층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택에서 · 수입 · 지출 내역을 적고 있습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 응답	0.3	0.3	0.3
가계부에 적고 있다.	36.2	22.3	27.2
가계부는 사용하지 않지만 기록하고 있다.	35.2	33.0	33.7
기록하지 않는다.	28.2	44.4	38.8
합계	100.0	100.0	100.0

또한 “택에서는 지출과 저축 중 어느 것을 먼저 결정하십니까?”라는 설문(〈표 6-2〉)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거의 절반씩으로 응답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세대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전세대에 있어서는 (소비)지출을 먼저 결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 비해 전후세대에 있어서는 저축을 먼저 결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후세대에 있어 가계생활의 계획성이 높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표 6-2〉 택에서는 지출과 저축 중 어느 것을 먼저 결정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 응답	1.4	2.1	1.8
소득 중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43.1	52.7	49.3
소득 중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55.5	45.2	48.8
합계	100.0	100.0	100.0

장례나 제사 또는 상속에 대한 태도는 합리적인 소비패턴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항목이라고 하겠다. 〈표 6-3〉의 “택에서는 장례나 제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 전

체응답자의 약 64%는 “이제까지 보다는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빚을 지더라도 잘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잘해야 한다”는 응답자들, 즉 전체의 35%는 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관혼상제 비용에 대한 의식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대간의 의식차에 관해보면 전전세대에 비해서는 전후세대가 약간 합리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3〉 덕에서는 장례나 제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응답	0.4	0.3	0.3
빚을 지더라도 잘해야 한다.	0.6	1.4	1.2
힘이 자라는 데까지 잘해야 한다.	30.3	37.0	34.6
이제까지 보다 다소 간소화해야 한다.	55.4	47.5	50.3
이제까지 보다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13.2	13.7	13.6
합계	100.0	100.0	100.0

상속에 대한 의견(〈표 6-4〉)을 보면 전체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48%가 “교육만 잘 시켜 주면 유산은 남겨주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을 선택하고 있으며, “나는 철저히 희생하더라도 자식만은 교육도시키고 상속도 많이 해주고자 한다”는 극단적인 태도나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이므로 유산을 남겨 줄 생각이 없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지닌 세대주의 비율은 낮다. 상속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전후세대는 전전세대

〈표 6-4〉 덕에서는 상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응답	0.4	0.7	0.6
자식은 자식이고 나(또는 부부)는 나이므로 유산을 남겨 줄 생각이 없다.	7.5	4.6	5.6
교육만 잘 시켜 주면 유산은 남겨주지 않아도 좋다.	51.8	46.3	48.2
유산을 조금은 남겨 줄 생각을 해보았다.	27.8	33.7	31.6
나는 철저히 희생하더라도 자식만은 교육도시키고 상속도 많이 해주고자 한다.	12.5	14.7	13.9
합계	100.0	100.0	100.0

에 비해 유산을 남겨 줄 의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계소비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표 6-5>에서 이웃집의 소비지출형태로부터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6%에 이르는 반면 “큰 영향 내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11%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전시효과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인 데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세대간의 차이도 그다지 두드러진 것이 없지만 거주지역이나 직업 등 특성에 따라서 이웃의 소비패턴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6-6>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의 선전광고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태도조사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대중매체를 통한 선전광고가 소비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표 6-5> 소득수준이 비슷한 이웃집의 소비지출 형태가 덕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응답	0.3	0.1	0.2
큰 영향을 미친다.	3.7	4.4	4.1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5.4	7.2	6.5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36.3	32.1	33.5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4.4	56.4	55.7
합계	100.0	100.0	100.0

<표 6-6> 덱에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선전광고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 미만	40세 이상	평균
무응답	0.6	0.6	0.6
선전·광고는 소비를 조작·촉진하므로 전전한 소비풍토를 저해 한다.	34.2	33.4	33.7
선전·광고는 실속이 없으므로 별 도움이 안된다.	24.1	27.6	26.4
선전·광고는 혼명한 소비생활을 하는 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1.2	31.9	31.7
선전·광고는 소비생활에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9.8	6.5	7.7
합계	100.0	100.0	100.0

견해보다는 소비를 조작 촉진하여 전전한 소비풍토를 저해하거나 실속이 없어 별 도움이 안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견해의 분포는 세대 간의 차이를 거의 수반하지 않고 있을 만큼 보편적이다. 매스콤을 통한 선전광고에 대한 다수국민의 거부반응은 광고내용의 질적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IV. 맷 는 말

먼저 Ⅲ의 분석에서 얻은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데서 시작해서 우리의 논의의 결론을 이끌어내기로 하자.

첫째, 우리 국민들은 별다른 세대간의 차이가 없이 근년의 우리 경제현 실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그렇지만 고도성장기에 채택해 왔던 성장전략이나 경제운영방식 및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의식은 전후세대에 있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고도성장 정책의 계속추진이나 정부주도형의 경제운영, 공해발생 산업, 대기업의 계속적 육성, 부동산투기 문제, 개인이나 기업의 토지 과다보유, 상속을 통한 부의 세대간 계승 등에 대한 거부반응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후세대에 있어서는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 부여나, 정치 및 사회제도 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높다. 또한 최근 흔히 논란되는 일부 집단이나 학생의 좌경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전후세대는 6·25의 미경험이나 반공이념교육의 불충분보다도 민주화의 지연이나 심한 빈부격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중점사항으로서도 민주화의 달성을 경제우위 확보나 남북 관계개선에 놓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로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소득격차의 존재 및 그 확대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의식하는 경향이 주목되며, 경제성장 혜택의 기업내 및 지역간의 배분에 있어서의 편중에 대해 매우 예민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바로 엄밀한 계측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계층간의 이질감 내지 위화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면이 강하며, 부의 형성과정에 관련된 정당성에 대한 희의와도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일반 특히 전후세대의 인식은 노사관계에 관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후세대 응답자의 거의 90% 노동자는 기업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견해에 찬동하고 있으며, 전후세대의 2/3에 이르는 응답자가 노사분규의 주된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불과 10% 남짓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전체, 특히 전후세대의 의식구조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전후세대는 절전세대에 비해 장기생활계획을 세우는 등 비교적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물질생활에 있어서의 여유를 중시하는 진취적이며, 현실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근대적 사고가 우리의 전후세대에 크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식의 낙후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각종 직업 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이 너무 뚜렷한 과도적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전후세대는 가계지출등의 면에서도 전전세대에 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관혼상제나 상속 등에 관해서도 전전세대가 지닌 전근대적 사고를 상당히 탈피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고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축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전쟁과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의 전후세대가 지닌 경제의식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를 지닐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후세대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이룩한 성과 및 장래전망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지닌 동시에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점에 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특히 전후세대를 포함한 국민일반이 공감하는 고도성장기의 한국 경제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불균형의 완화작업이 커다란 충격이나 반작용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짐작한 긴장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노사분규의 원만한 타결을 통한 성숙된 산업평화의 확립은 그 최대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고도성장과 급속한 부의 축적과정에서 소홀히 되어 왔고 가치체계의 혼란을 가져왔던 경제윤리체계의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우리의 구체적인 여건과 발전단계에 맞는 나름대로의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가치체계가 모색되고 추구되어가야만 단절없는 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 참고문헌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6 「한국인의 생활의식조사—경제생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전환기의 한국사회—국민의식조사자료집」, 한국일보사 출판국.